메리츠 금융 Daily

2020. 5. 13

meritz 메리츠증권

은행/지주 Analyst 은경완
02. 6454-4870
kw.eun@meritz.co.kr

보험/증권 Analyst 김고은
02. 6454-4871
goenkim@meritz.co.kr

News

기업대출 3월 이어 4월도 역대 최대 증가…가계대출은 꺾여 — 연합뉴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929조2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7조9천억원 늘어…역대 최대 기록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워
기업들이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해 단기 유동성 확보에 나선 데다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이 중소 · 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상대로 정책성 자금 지원을 대폭 늘린 영

한은, '코로나 충격' 중기·자영업자에 5조 추가 지원 — 뉴시스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증액하는 안건을 의결
은행이 기업에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면, 한은이 금액의 절반 이상을 지원...자금은 서울과 지방에 1조원, 4조원씩 배정

무디스, 韓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코로나발 경제피해 제한적" — 연합뉴스

무디스, "...강한 거버넌스와 충격에 대한 효과적인 거시경제 · 재정 · 통화관리 역량을 보유…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 잠재력과 강한 재정 · 부채지표를 유지 기대…
다만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가운데 한국도 수출 지향적 제조업 국가인 만큼 소비와 투자에 영향을 받을 것…또 고령화와 북한과의 지정학적 위험이 상존

신한은행, 아파트 외 전세자금대출 중단하려다 취소 — 연합뉴스

신한은행,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의 전세자금대출을 일시 중단하려다가 돌연 취소...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출을 중단하려한다는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
다세대 빌라, 단독 · 다세대가구 등은 주로 서민들이 사는 주거형태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서민 대출상품을 먼저 중단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

보험사 연금저축 수익률 1%대…수수료 떼면 '마이너스' — 한국금융

금융소비자연맹이 18개 생명보험사가 공시한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 · 수수료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18%로 나타나...
"세제혜택이 많아 서민들의 노후준비 수단으로 가입하는 연금저축이 저조한 실적에 적립금이 줄어드는 손해...수탁기관을 변경하는 등 노후연금 준비를 다시 설계하

'빅3' 생보사, 신입 설계사 실적 못 채워도 '수당 지급' — 머니투데이

빅3 생명보험사가 신입 설계사가 기본적인 실적을 채우지 못해도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확대...코로나 19로 대면 영업활동이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한 조치
삼성생명, '정착 수수료'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려...교보생명, 한화생명, 기본 활동 점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수당 그대로 지원…

ELS는 위험한 투자? …"원금손실 난 상품 100개 중 1개도 안돼" — 한국경제

금융위원회는 마진콜 사태를 계기로 ELS를 규제하기로...나오는 얘기는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방안…
증권사, "ELS 상품 운용은 고객 투자금으로 하고, 절반 이상 안전 자산인 채권에 투자...나머지를 파생상품 투자...증권사의 자기자본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PF 채무보증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 — 연합뉴스

증권사들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올해 7월 도입...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내년 하반기부터 자기자본 이상의 부동산PF 채무보증 제
순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는 부동산채무보증비율을 120%, 내년 초부터 6월 말까지는 110% 이하로 제한하고, 이후 100% 이하로 제한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